

2021년 2월 6일 3차 당원토론회

주제: 제주녹색당의 운영구조

참여: 그린씨, 신현정, 서신심, 안재홍, 김순애, 정화빈, 부순정, 한은정, 김송기은, 박은서, 양인숙, 최희정, 은종복, 김선, 김주영, 장연희(총 16인)

1. 발제 내용 요약

1)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직선제 개편에 대한 의견(발제: 신현정)

현재, 호선 2인으로 운영위원장 선출

운영위원장의 권력-책임/운영위원회의 권력-책임 불분명. 권력 비가시적, 책임 분산
운영위원장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제주에서 정치를 할 수 있는 구조인가? 혹은 단지
운영위원회의 대표인가?

제주지역에서 도지사 선거이후,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위상 커짐

정치적 권력을 가진 운영위원장이 이후 의회 권력에 진출하기 위해서 당원들도 선거
에 익숙해져야 하며 선거라는 공간이 의제들이 경합하는 공간이 되어야

직선제를 통한 권력 가시화 필요

제녹당 감당하기에 어려울 만큼 업무 과중. 일할 사람이 필요. 사무처 고용 여력 없
음.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된 사람들이 제주녹색당 당무 집행-보상을 사회적 대가
와 인정-많은 책임과 권한 부여를 통해

운영위원장에게 사무처 임명권, 정책위원장 임명권, 예산권 등을 부여하여 원하는 비
전에 맞춰 제주녹색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묻는 과
정이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음

제주녹색당의 정치인이 성장하는 과정으로도 직선제가 적합

2)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선출 제도에 대한 의견(발제: 안재홍)

당헌 전문을 보면 풀뿌리 민주주의 운영원리가 주요한 내용으로 나와 있음. 타 정당
과의 차별성

풀뿌리 당원 중심, 지역 중심의 당 문화가 당헌에 제시되어 있음

당 대의원대회는 녹색당만의 고유한 원칙으로 추천제 대의원 선출

어떻게 풀뿌리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질문이 선행되어야

운영위원회 중심의 구조를 운영위원장 중심으로 가는 것이 대의제를 단순하게 하는
것인가 의문

체계 변경은 당의 운영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진행. 제주녹색당 운영에 있어서 한계
지점을 모색하고 해결방법을 찾아야

- 제주녹색당의 한계, 풀뿌리 중심 당이라 하면 당원들의 참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
인가가 중심-직선제로 해결 가능하다는데 의문

- 직선제보다 현재 운영위를 당원들의 대의 기구로 만족할 수 있게 구성해야: 지역모임 사라진 상황에서 지역별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 의제에 대한 의견 수렴, 운영위원 선출 방법 등이 더 고민되어야 한다
- 당내 재정현황과 인적 구성을 볼 때 규약을 개정하더라도 직선제 실행 어려운 상황
- 제주녹색당 내 다양한 주장들이 생겨나면 좋겠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방향에 대한 계파들이 등장하고 주장들이 공론화되길 희망
- 운영위원회를 대의기구에 적합하게 구성하는 것에 고민이 집중되어야 한다.

2. 의견 나눔

1) 녹색당 운영원리와 정당 운영원리에 비추어 본 직선제VS현체제

- 제주녹색당 현실이 운영위원장에게 적절한 재정적 보상을 하지 못한다면 권한은 보장되어야
- 당 강령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역분권제가 강령에 나와 있음. 의제모임과 지역 모임 활성화가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 직선제는 직접민주주의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와 등치는 아니다. 운영위원장 개인에 권한이 집중되기보다 운영위원회에 집단적인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에 적합.
- 직선제 주장 근거에는 정치적 의지를 가진 이가 운영위원장 등의 활동을 통해 정치적 역량을 점검받고 평가받으면서 성장하는 것. 2018년 지방선거를 거쳤지만 제주녹색당 내부에서 발굴된 정치인이 성장할 수 있었는가?
-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지역 모임/의제 모임이 활성화되고 그 대표들이 운영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겠지만 일반평당원이 녹색당 활동에 대해 에너지를 가지고 의견을 낼 수 있을까 의문. 정치적 의지를 가진 사람이 당 안에서 정치적 역량을 가지고 싶다면 현실화 가능한 제도 마련 필요. 이상과 현실 사이에 난감.
- 당내 선거를 통해 당원가입의 증가 경험. 창당지역-창준위-직선제-제주 의제의 전국화 등의 프로세스에 대한 고민 필요. 녹색당 의제모임/지역모임의 적극적 활동이 직선제를 기폭제로 해서 가능할 수 있을 것
- 제주녹색당 정치인 발굴과 성장은 2022년 지방선거 프로세스를 어떻게 짤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속에 방법이 나올 것.
- 운영위원회 대의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고민 진행 필요
- 2022년 지역사회 고민들을 함께 할 수 있는 후보자가 나와야 하며 선거팀-정치팀 등의 팀 선거 필요

2) 현실 상황

- 현재 직선제 실시 지역은 서울/경기/부산. 서울/경기는 사무처도 여러 명이고, 재정 가능하지만 부산은 직선제 시행이 잘 안 되는 상황

- 전국당 역시 당대표제로 당헌 개정 후 당대표 후보 모집하지만 계속 후보가 없어서 연장하고 있음.
- 안정적 활동을 위해서는 사무처장에 최저임금 지급 + 운영위원장 실비 활동비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
- 직선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인적 물적 인프라가 가능해야 한다. 현재 제주녹색당이 받은 월 당비가 150만 원 정도 선. 운영위원장에게 합당한 활동비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
- 어떤 제도를 실현하던지 물리적, 인적 경제적 자원이 확보되어서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
- 작년 1년 동안의 제주녹색당 당원 탈/입당 파악해보면 현실적인 운영 안정 어려운 상황
- 제주녹색당에게 실제로 필요한 과업(제주 당원 증가, 당비 증액을 위한 단기, 중장기 계획)에 대한 고민과 계획 수립, 실행이 더 필요
- 토론을 통해서, 제주녹색당 상황이 공유되고 의제/지역모임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더 풍부해져야 한다.
- 현재 제주녹색당의 현실 상황 상 조직을 더 키우고 구조화하는 작업이 우선

3) 운영 관련 기타 제언

- 운영위원장 임기 1년으로 늘이고 중임, 연임 가능하게 해야
- 안정적인 활동비, 급여 지급이 당 활동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 재정에 대한 체계를 만들고 제정조달 방법에 대한 고민 필요
- 운영위원장의 권한과 책임 규정 모호, 역량강화 및 책임강화 필요
- 운영위원들 사이에서도 선거연합/가산점제/권한과 구조/책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상이했음. 운영위원, 운영위원장 교육 필요

4) 교육

- 당원교육 정례화 필요/제주녹색당이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교육 주제에 대한 공감 필요. 정당에 대한 교육 중요/조직의 원리, 의사결정과정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교육 필요
- 2020여성 프로젝트처럼 전국당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 참여 지원, 과거 예산 감시 교육처럼 육지에서 강사 초빙하는 방법 등도 가능
- 많은 당원들의 요구를 담기 위한 설문 조사 제안
- 녹색당은 당명에서 보듯이 환경에 대한 당원들의 관심 높음. 그 부분에 대한 심화 교육 제안
- 정당으로서 세계녹색당 역사 등 파악하는 것 필요, 다른 나라 녹색당의 역사 및 활동 현황 파악이 한국녹색당의 좌표가 될 수도 있음
- 인권/학생/여성 교육이 필수

- 제주 녹색당의 특징에 대한 교육

5) 의제 모임

- 제주녹색당 차원에서 녹평 모임 제안: 매달 어려우면 격월 단위로 온오프라인 믹스 진행 제안
- 지역 모임 최소단위로 묶는 방법 제안. 가볍게 시작할 수 있도록/문턱을 낮추는 모임 다양해져야
- 당내 지역/의제 모임을 구성할 것인가? 기존에 지역 내에 존재하는 모임에 함께할 것인가 질문이 든다
- 당내 모임 구성을 통해서 내부가 강화되고 깊어져야 기존 지역 모임에 참여할 때 녹색당 활동과 시너지가 생길 수 있다. 병행 필요
- 서울녹색당: 의제모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루키단계 존재

6) 공간

- 온라인기반 조직. 줌 활용법에 대한 교육, 통합적인 논의 진행 필요
- 물리적 당사 마련 필요. 안정적 공간이 지금 준비되어야
- 민주주의 온라인 플랫폼 기대
- 현재 녹색당 홈페이지 아카이빙이 주목적: 당원들 의견 게시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 당원들이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공간(당사) 필요
- 사람을 만나고 가까워지는 방법 중 하나가 찾아가는 것도 중요
- 당원들이 운영하는 공간에서 책임기 등 다양한 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방법 병행